

시설 딸기 · 토마토 농장경영모델 개발 연구

정수진*, 박길석*, 김성란*, 정경진*, 최경락*, 김영광*

*경상남도농업기술원

e-mail:sujinee87@korea.k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Strawberry and Tomato Farm Management Model

Su-Jin Jeong*, Gil-Seog Park*, Seong-Ran Kim*, Kyeong-Jin Jeong*, Kyeng-Lag Choi*, Young-Gwang Kim*

*Gyeongsa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약

농장경영모델은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 농가에게 경영규모에 맞는 고정자본재의 경제적 이용과 노동시간 배분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 정착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써 경영모델이 필요하고, 또한 품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인에게도 다양한 작목의 농장경영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채소 두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농장경영모델을 제시하고자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설 딸기와 시설 토마토를 재배하는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성과 적정 경영규모를 조사하였다.

시설 딸기에서는 수경재배 시,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량은 총 890시간/10a이었고, 그 중 수확 노동력이 339시간/10a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선별 · 포장이 159시간/10a, 적화 · 적과 · 노엽제거가 84시간/10a으로 뒤를 이었다. 순별 노동 투입 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2월 상순에서 3월 상순으로 46시간/10a로 나타났다.

시설 토마토에서는 양액재배 시,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량은 총 799시간/10a이었다. 수확 노동력이 258시간/10a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선별 · 포장이 163시간/10a, 순지르기 · 슈아내기가 93시간/10a이었다. 순별 노동 투입 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월 중 · 하순으로 32시간/10a로 나타났다.

딸기 수경재배 시 필요한 대농기구 및 시설은 시설하우스, 작업장(선별장), 난방기(온풍기), 양액기, 환풍기, 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이 있으며 하우스 시설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토마토 양액재배를 할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작업장, 저온저장고, 난방기(온풍기), 양액기, 선별기 등의 대농기구 및 시설이 필요하였으며 딸기와 마찬가지로 하우스 시설 투입비용이 가장 높았다.

목표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시설 딸기 적정 경영모델은 4,397㎡ 재배면적으로 수경재배를 할 경우, 3,916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면, 총수입 96,264천원, 경영비 46,231천원이 투입되어 목표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토마토의 경우에는 4,506㎡ 재배면적으로 양액재배를 할 경우, 3,602시간의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총수입 108,031천원, 경영비 58,021천원으로 목표소득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표소득 기반의 시설 딸기 · 토마토 농장경영모델은 귀농인과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와 작업단계별 순별 노동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입 노동력을 계상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5068022021)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